

보도자료

2011년 5월 3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연구소 이천분소 박완기 전자파시험과장 (☎031-644-7450)
 이천분소 박정규 연구사 (☎031-644-7490) jkpark@kcc.go.kr

전파연구소 “새로운 안테나 교정기술 개발”

- 오는 8월 세계적 권위의 IEEE EMC에 논문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새로운 안테나 교정 기술을 개발하여 전기전자공학회(IEEE)로부터 인정받아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오는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IEEE EMC2011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안테나 교정기술은 안테나 3개로 2번 또는 3번 측정하여야만 안테나 이득을 알아낼 수 있었으나 이번에 전파연구소에서 개발한 새로운 안테나 교정방법은 2개의 안테나로 1번만 측정하여도 안테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며, 측정시간 및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측정불확도를 축소하여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이 교정방법은 주파수 범위 및 안테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측정용 안테나의 교정뿐만 아니라, 특히, 전파 및 정보통신에 이용되는 통신용 안테나 이득 측정에 손쉽게 응용되어 안테나 측정 산업의 주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파연구소는 기대하고 있다.

새로 개발한 안테나 교정기술은 소속 공무원(박정규, 문구선, 유대훈, 이보원, 김우년)들이 전자파적합 인증 시험용 안테나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연구를 병행 수행하여 쌓았던 Know-How로 창출된 산물이며, 안테나 측정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전파연구소측은 밝혔다.

전파연구소는 새로이 개발된 안테나 교정방법을 전자파장해 측정의 표준을 관장하는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에 30MHz ~ 1GHz 대역 전자파장해 측정용 안테나의 표준 교정 방법으로 제안하여 국제표준으로 채택 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